

## 야오토미 신사

야오토미 신사는 가마고리 인근 해역에서 약간 떨어진 다케시마 섬 전체에 걸쳐 있는 일본식 절입니다. 380미터 길이의 인도교는 본토와 다케시마를 연결하고, 신록의 식물에 둘러싸인 주요 신사와 여러 하위 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오토미 신사의 역사는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섬은 훨씬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신사와 섬은 부지를 가로질러 암석 해안을 따라 다리까지 돌아가는 산책로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 오랜 역사

야오토미 신사는 신하이자 시인인 후지와라노 순제이(1114-1204)가 미카와 국(오늘날 아이치현 동부 지역) 총독으로 재직하던 1181년에 설립한 신사입니다. 신사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순제이가 당시 수도였던 교토 근처 비와호에 있는 작은 섬 지쿠부시마에 있는 비슷한 성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쿠부시마의 신사는 물과 관련된 신이자 예술과 문화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벤자이텐을 모시고 있습니다. 순제이는 다케시마에 그 신사의 분파를 세우는 영감을 받았고, 야오토미 신사도 같은 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나무 섬”이라는 뜻의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순제이가 비와호에서 대나무 한 쌍을 가져와 섬에 심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케시마의 풍경은 후지와라노 순제이 이후 신비로운 섬의 힘을 믿는 많은 유명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600년, 2세기 반 동안 일본을 통치한 막부의 창시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는 전장에서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다케시마에 들렀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1899-1972)를 비롯한 많은 유명 작가가 해변의 도키와칸 여관에 머물면서 이 섬을 방문하였습니다.

### 다양한 신사

주요 벤자이텐 신사 외에도 야오토미 신사 부지에는 4개의 하위 신사가 있습니다. 우가 신사는 상업과 음식의 신을 모시는 곳으로, 많은 신도가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이코쿠 신사는 상인, 농부, 요리사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번영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지토세 신사는 후지와라노 순제이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곳 중 마지막 신사는 바다의 신을 모신 하치다이류 신사로, 섬의 원조 신사로 알려져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다케시마는 순제이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바다와 관련된 신들의 거주지로 숭배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신사는 주요 야오토미 신사와 마찬가지로 북쪽을 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남쪽은 일반적으로 신사가 바라보는 가장 상서로운 방향으로 여겨지지만, 신들이 사람들이 사는 본토를 감시할 수 있도록 다케시마에서 반대 방향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 웅장한 녹지(천연기념물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오랫동안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수 세기 동안 새로운 나무나 다른 식물이 유입되지 않았으며 원시 식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섬은 대부분이 난대 상록수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리 건너 본토의 소나무 숲과 세심하게 관리된 잔디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케시마에 있는 230 종 이상의 식물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은 높이가 30 미터에 달하고 숲의 다른 부분보다 우뚝 솟아 있는 활엽수인 월계수 나무 *다부노키(Machilus thunbergii)*와 짙은 녹색 잎이 향기롭고 윤기가 나며 세 개의 독특한 잎맥이 있는 *야부닛케이(육계; Cinnamomum yabunikkei)*입니다. 뾰족한 덤불은 여러 종의 양치류, 덩굴류, 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뾰족한 종자 머리를 가진 풀과 같은 식물인 *기노쿠니스케(Carex matsumurae)*가 자라고 있습니다. *기노쿠니스케*는 아열대 지역에서 더 흔하며, 다케시마는 일본 태평양 연안의 최북단 지역에서 자랍니다.

신사 부지는 인도교에서 시작하여 주요 신사 건물로 올라가는 포장된 산책로를 따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섬을 가로질러 하위 신사를 지나 해안가로 이어집니다. 산책로는 해안선을 따라 다시 다리까지 돌아옵니다. 섬을 여유롭게 걸으면 약 30 분 정도 소요됩니다.

### 다시(축제용 장식 수레) 축제

다케시마를 방문하는 가장 인기 있는 기간 중 하나는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야오토미 신사 대축제 기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다케시마에 있는 다이코쿠 신사의 신이자 일본 신화의 일곱 명의 행운의 신을 기리는 춤과 본토에서 야오토미 신사의 전통 교구 18 개의 지역을 대표하는 수레를 들고 행진하는 퍼레이드입니다.